26, January, 2026 Vol. 110

E S G

| Bi-Weekly |

신영 ESG

" AI시대, 전력에 이어 이젠 물이다 "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POSCO 홀딩스

ESG ETF 따라잡기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KARS)

ESG News Clipping

ESG essay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AI시대, 전력에 이어 이젠 물이다

수 자원 관리의 점점 중요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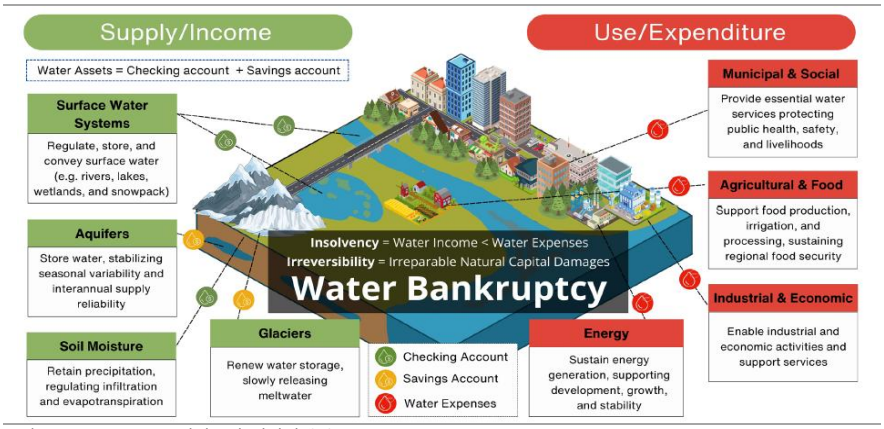
UN 글로벌 물 파산(Global Water Bankruptcy) 보고서를 발표

최근 UN은 올해 12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2026 UN 물 콘퍼런스를 앞두고 '글로벌 물 파산(Global Water Bankruptcy)' 보고서를 발표하며 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UN산하의 유엔대학교 물·환경·건강연구소(United Nations University–Institute for Water, Environment and Health)에서 작성 발표한 본 보고서는 기존의 '물 스트레스(water stress)'나 '물 위기(water crisis)'를 넘어선 새로운 개념으로 '물 파산(water bankruptcy)'을 추가함.

물 스트레스, 물 위기를 넘어 이젠 물 파산을 관리해야 할 때
→물 파산이란 단순한 물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의 회복 역량 자체가 약화된 상태를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물 파산의 의미를 '재생 가능한 유입량과 안전한 고갈 수준 대비 지표수·지하수의 지속적 과다 취수, 그리고 이로 인한 비가역적이거나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물 관련 자연자본 손실'로 정의함. 이는 단순한 물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의 회복 역량 자체가 약화된 상태를 의미함. '물 스트레스'는 아직 회복 가능한 높은 압력을 나타내는 반면, '물 위기'는 급격하고 시간 제한적인 충격을 의미함. '물 파산'은 이보다 더 나아가 누적된 피해와 과잉 사용으로 인해 시스템의 회복 능력이 약화된 위기 이후의 뚜렷한 상태를 의미함. 다음의 물 파산 개념도에 따르면 호수·습지·대수층·빙하 등 '물 자산'에서 발생하는 공급(income)을 농업·도시·산업·에너지 부문의 사용(expenditure)이 장기간 초과할 경우, 비가역적인 자연자본 훼손이 누적되며 물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됨.

도표 1. 물 파산(water bankruptcy)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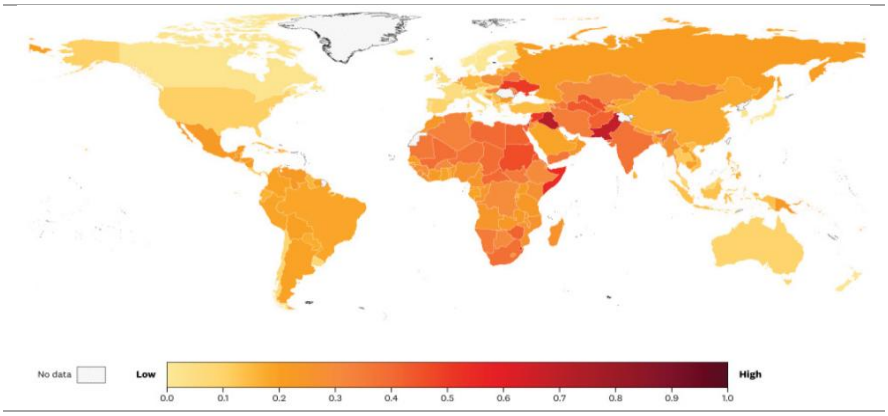


자료: UNU-INWEH,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물 파산 관리는 완화와 적응을 결합한 접근 방식으로 과거의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고, 제한된 수자원 여건 속에서 권리와 수요의 균형을 재조정 등을 의미

보고서는 세계 물 문제의 핵심을 인간 활동으로 인한 가뭄이라고 경고함. 가뭄과 물 부족이 단순히 자연적인 변동성 결과가 아니라, 과잉 배분, 지하수 고갈, 토지 및 토양 황폐화, 삼림 벌채, 오염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약 61억명이 담수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40억명은 연중 최소 한 달 이상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해 있음. 또한 전 세계 농지 중 1.7억 헥타르 이상이 '높음' 이상의 물 스트레스에 놓여 있으며, 30억명의 인구와 전 세계 식량 생산의 절반 이상이 이미 물 저장량이 감소하거나 불안정한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보고서는 이제 단순한 대응을 넘어 물 파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물 파산 관리는 완화와 적응을 결합한 접근 방식으로 과거의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고, 제한된 수자원 여건 속에서 권리와 수요의 균형을 재조정하며, 물 집약적인 산업과 개발 모델을 혁신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을 위한 공정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도표 2. 지역별 물 관련 문제에 대한 취약 수준



자료: UNU-INWEH,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물은 산업 공정 전반에 핵심 투입 요소로 물 부족은 기업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 식품·음료·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도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함

물은 산업 공정 전반에 핵심 투입 요소로 물 부족은 기업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글로벌 담수 수요는 2030년까지 공급을 약 4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60%가 안정적인 물 접근성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식품·음료·농업 부문은 전 세계 담수 취수량의 약 70%를 차지해 물 리스크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음. 또한,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도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함.

최근에는 인공지능(AI) 확산이 물 수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AI 확산 시대에 대응한 물 자원 관리가 새로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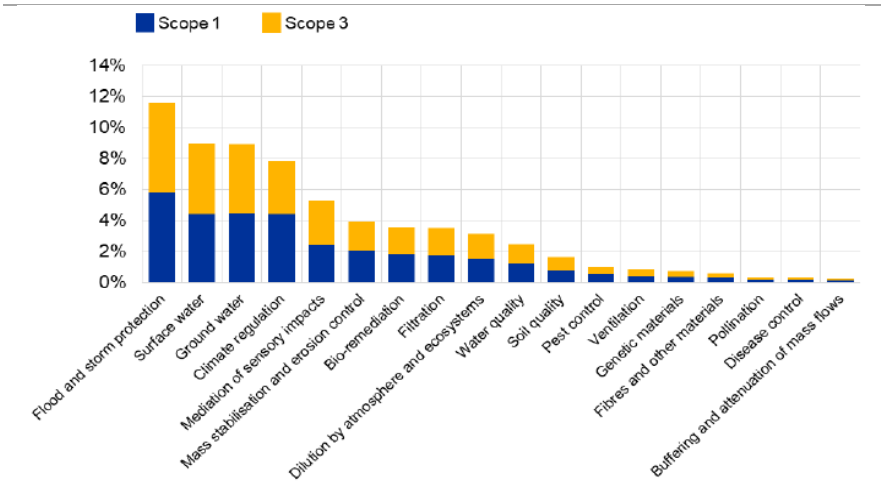
여기에 최근에는 인공지능(AI) 확산이 물 수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언론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 기반 성장으로 인해 미국 전체 연간 식수 수요에 맞먹는 물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추산함. 지난 해 AI용 데이터센터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 확보가 이슈였으나,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내 열관리

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냉식 열관리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나아가 침냉식 열관리 기술까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AI 확산 시대에 대응한 물 자원 관리가 새로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ECB에 따르면 유로존 경제 생산의 상당 부분이 홍수 방재, 수자원, 기후 조절 등 자연 기반 생태계 서비스 훼손에 노출돼 있음 → 특히 이중 물 관련 리스크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

또한 최근 ECB에서 공개한 '위험에 처한 자연: 유로존 경제 및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Nature at risk: Implications for the euro area economy and financial stability) 보고서에서도 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 경제 생산의 상당 부분이 홍수 방재, 수자원, 기후 조절 등 자연 기반 생태계 서비스 훼손에 노출돼 있음. 특히 이중 물 관련 리스크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지표수와 지하수 부족, 그리고 지역적으로 악화되는 수질은 매우 심각한 위험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는 유로존 경제에 가장 큰 자연 관련 위험으로 지목됨. 또한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최근 수십 년 동안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적 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물의 중요성을 강조함. 한편 이와 같은 물 문제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UN보고서에 따르면 물 관련 분쟁은 아프리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1년 약 100여건에 불과했던 분쟁이 2024년 4배 이상 증가해 400건을 넘어섰다고 밝힘.

도표 3. 생태계 서비스별 경제 전반의 자연 위험 가치(Scope 1 및 Scope 3 위험) – 유로존 경제 생산량 대비 위험 비중



자료: ECB,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우리 나라도 물 스트레스 국가임. 이에 기후 변화와 자연 훼손에 따른 리스크를 빨리 업무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더욱 빨리 나아가야 할 것임

우리 나라도 물 스트레스 국가 중 하나임. 기후 변화와 산업의 발전 등으로 이젠 보다 체계적으로 물 자원을 관리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음. 유럽중앙은행(ECB)이 기후 변화와 자연 훼손에 따른 리스크를 통화정책과 운영 전반에 통합하며 관련 업무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처럼 국내에서도 기후 변화 리스크와 자연 자본을 업무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더욱 빨리 나아가야 할 것임.

ESG 이벤트 & 신영's View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KT 다시 시험대 오르나

- 국민연금공단,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적용 방침 발표
- 박윤영 차기 CEO 후보자,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공식 취임 예정. 다만 후보자 선임 과정의 정당성 문제 대두
- 국민연금공단은 KT 지분 7.54% 보유 중인 주요 주주 중 하나로, 해당 문제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에 관심

Comments

-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KT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가능성에 관심
- 박윤영 CEO 후보자 선임 당시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과거 2023년 대표 선임 과정을 둘러싼 혼란이 재현될 수 있고, 이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 또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Analyst 정원석

엑손모빌·셸이 멈췄다…베네수엘라 원유, 정치 리스크 넘어 '메탄 경고'에 막혀

- 글로벌 빅오일이 베네수엘라 투자를 주저하는 배경으로, 노후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메탄 누출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부상
- Nature Communications의 위성 관측 결과에 따르면, 오랜 기간 방치됐던 베네수엘라의 유전 인프라는 전체 가스 생산량의 약 25%를 대기 중으로 유실하며 막대한 양의 메탄을 배출

Comments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향후 석유 자산 매각과 원유 수익 관리를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힘
-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이 정상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유가에 하방 압력을 더할 수 있음. 다만 생산량 회복을 위해서는 방치된 인프라의 재건과 함께 석유 업계의 투자 및 직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안정장치가 요구되는 바, 국제유가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Analyst 신홍주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위헌 심판대에… 기업 대응 셈법 복잡해졌다

- SB 261은 중단, SB 253은 유지…엇갈린 법원 판단 →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4년 초 미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5개 경제단체가 연방법 위반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
- SB 253은 기업의 온실가스(GHG) 배출량 공시를, SB 261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 공시를 각각 의무화한 법안으로 적용 대상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각각 연 매출 10억달러 이상, 연매출 5억달러 이상

Comments

- 美 SEC가 추진했던 기후공시는 소송으로 인해 중단,, SB 253은 2026년부터 Scope 1·2 공시 본격화 → 다만 구체적인 보고 방식과 세부 일정은 CARB가 마련할 시행규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 EU CSRD 2025년 공시 시작, ISSB 채택한 국가들은 2026년 이행 단계 돌입 → 영국 2026년 회계연도부터 UK SRS 의무화 예정, 호주 2025~2026년을 거쳐 대형 상장사와 금융기관부터 단계적 도입, 캐나다 2026년부터 상장사를 중심으로 CSSB을 적용 예정
- 국내 ESG 공시 로드맵 조만간 발표될 듯(금융위)

–Analyst 오광영

ESG 탐방노트

이차전지 담당 박진수 T.02)2004-9851 / park.jin-soo@shinyoung.com

POSCO홀딩스(005490.KS)

매수(TP 440,000원)

기술 본위 저탄소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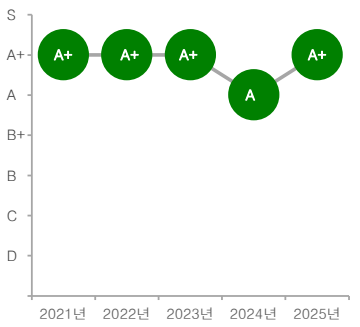
현재주가(1/23) 367,000원

ESG 등급 현황

(평가기관)	ESG	E	S	G
KCGS	A+	A	A+	A+
Bloomberg	5.15	4.53	4.88	6.47

주: KCGS :S~D 7등급
Bloomberg: 10 만점 기준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6.01.23)

시가총액(억원)	296,619
배당수익률(12F,%)	2.7
외국인지분율(%)	29.5
주요주주 지분율(%)	
POSCO홀딩스	8.7 %
국민연금공단	7.6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8.3	17.6	13.8	41.9
KOSPI대비 상대수익률	-0.9	-7.7	-30.2	-28.8

Environment

구 분	단위	2023	2024
온실가스 배출량	천 tCO2eq	79,003	78,660
폐기물 발생량	천 ton	20,530	21,910
재생에너지 사용량	GJ	1,249	6,367
환경경영 인증	24 년 ISO14001 인증비율 100%		
환경경영 조직	ESG 위원회		

Social

구 분	단위	2023	2024
LTIFR	명/20만 시간	0.83	0.72
기간제 근로자 비율	%	13.0	12.1
여성 근로자 비율	%	8.8	9.1
사회 공헌지출	억원	706	814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Governance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2 주전 통지
전자투표제	실시
집중투표제	실시
배당 실시 배당기준일	분기 배당 (4 회) 이사회 결의
이사회 운영 실적	10 회, 참석률 98.1%

ESG 관련 최신 활동

포스코홀딩스, 한국 ESG 기준원 평가 종합 A+ 획득 (페로타임즈, 25.11.21)

- 포스코홀딩스가 한국 ESG 기준원의 2025 ESG 평가에서 종합 및 지배구조 영역 A+ 등급을 획득
- 포스코홀딩스는 2022년 지주회사 출범을 기점으로 이사회 ESG 세션과 그룹 최고 경영진 경영회의체인 그룹 ESG 협의회를 신설
- 이사회 평가 도입, 역량평가표 공시, 신주주 환원 정책 도입, 반부패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그룹 차원의 ESG 거버넌스 강화 노력을 인정받으며 지난해 대비 1단계 상승한 A+ 등급을 획득

기후에 이어 숲/물/동물까지, 포스코홀딩스 ESG 공시 범위 확대 (시장경제, 25.07.02)

- 포스코홀딩스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5년 6월 발간하며 생물 다양성 공시를 새롭게 포함. 기후를 넘어 자연 생태계 전반까지 ESG 보고 범위를 확장
- 철강, 이차전지 소재, 인프라, 신사업 등 2 Core+New Engine 전략이 ESG 관점에서 정리. 국내외 15개 주요 계열사의 ESG 실적을 정량, 정성적으로 공개
- 올해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응하여 TCFD, TNFD 페이지를 신설

포스코홀딩스, 1조 규모 ESG 채권 발행 (딜사이트, 25.04.29)

- 포스코홀딩스가 해외 채권시장에서 5년 만기 $4억, 10년 만기 $3억 규모의 2개 트랜치에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
- 그린본드는 ESG 채권 중 하나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 포스코홀딩스는 그린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에너지소재 사업에 활용할 계획

ESG history

연 혁	내 용
2012	[E] ISO 50001 인증을 획득하고 매년 재심사를 통해 인증 유지
2020	[E] 2050 탄소중립 선언
2022	[ESG] 지주사 체제 출범 후 그룹사 전체 ESG 통합 전략 수립
2023	[S] 포스코퓨처엠,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 최초로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ESG]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 통합 A+ 등급 획득
2024	[E] 광양제철소 전기로 착공 등 저탄소 생산 체제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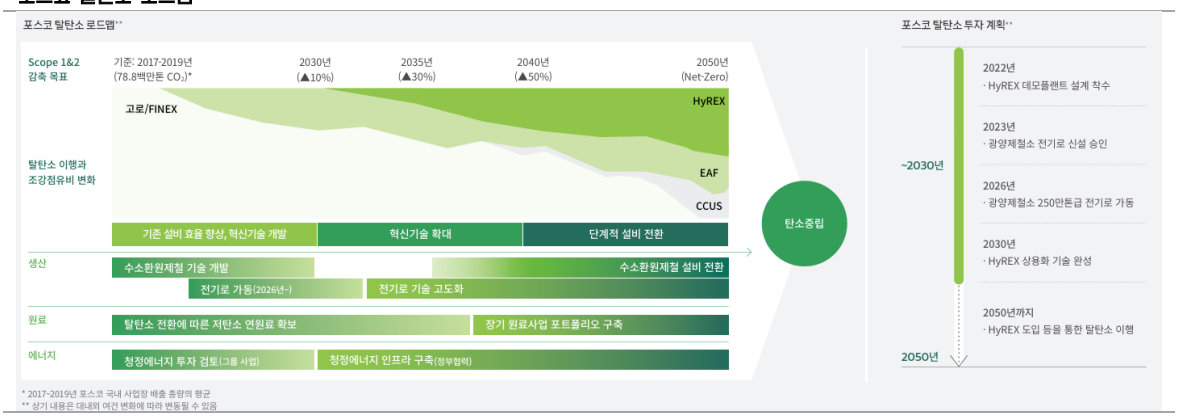
철강 부문 2050 탈탄소 로드맵

철강 부문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50 탈탄소 로드맵'을 수립. 원료, 투자, 에너지, 기술 개발 등 중장기 종합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모니터링과 전략 갱신을 통해 탄소 저감을 추진 중. '17~'19년 3년 평균 배출량 7,880만t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 2030년과 2035년 감축 목표는 국가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하여 재점검 중. 단기 관점에서는 고로 설비 효율 향상, 수소 취입, 저탄소 연료, 원료 사용을 통해 석탄 사용량을 줄일 계획이며, 중기적으로는 대형 전기로 도입, 저 HMR(Hot Metal Ratio) 조업 기술 개발, CCUS(탄소 포집) 등의 기술을 적용할 예정. 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HyREX(Hydrogen Reduction)' 개발을 통해 철강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

포스코형 HyREX(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수소환원제철은 제선 공정에서 환원제 및 원료탄을 수소로 대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 동사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파이넥스 공정의 유동 환원로 기술을 기반으로 적용하였으며 해외 철강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샤프트 환원로 방식과는 상이. 원료 측면에서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 분광을 그대로 사용하여 원료 확보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설비 기술 측면에서도 샤프트환원로 방식 대비 온도 제어에 유리. 동사가 개발한 유동환원로 베이스 파이넥스 공정은 DRI(직접환원철) 제조 기술과 수소 투입이 접목되어 가장 유리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포스코 탈탄소 로드맵



자료: POSCO홀딩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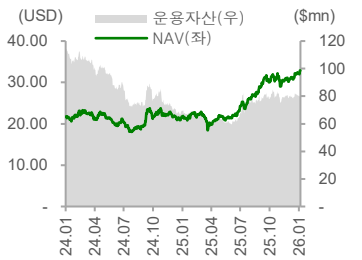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KARS)

Key Facts	
상장일	2018/01/18
기초지수	Bloomberg Electric Vehicles Index
구성종목수	77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79.3
시장가격(USD)	32.56
NAV(USD)	32.37
총보수(%)	0.72
운용사	Krane Funds Advisors(CICC)

Top Holdings (기준일: 2026.1.21)	
ALBEMARLE CORP	5.01%
Panasonic Holdings Corporation	4.81%
STMICROELECTRONICS NV	4.26%
TESLA INC	3.88%
BAYERISCHE MOTOREN WERKE AG	3.8%
BYD CO LTD -A	3.73%
CMOC GROUP LTD-A	3.55%
CONTEMPORARY AMPEREX TECHN-A	3.4%
XIAOMI CORP-CLASS B	3.34%
Lynas Rare Earths Limited	2.58%

NAV와 운용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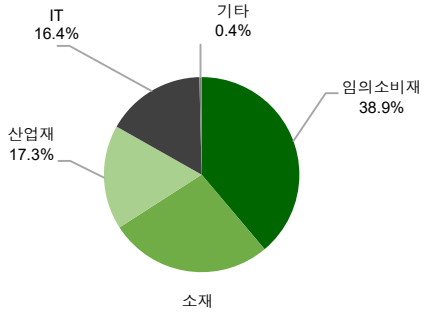
ETF 개요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KARS)는 2018년 1월 상장된 ETF로, 기초 지수인 Bloomberg Electric Vehicles Index를 추종하는 ETF임. 이 지수는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저장 기술, 자율 주행 기술, 리튬 및 구리 채굴,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서 상당한 매출을 창출하는 글로벌 상장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전기차, 자율주행차, 공유 모빌리티를 포함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등 새로운 교통 수단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 또한 사물인터넷(IoV) 및 지능형 모빌리티와 같은 차량 연결성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들도 포함하고 있음. 여기에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한 리튬 이온 배터리 및 리튬과 같은 비철금속 수요 증가에 따른 잠재적 성장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포함됨. 분기별로 재구성 및 리밸런싱 됨.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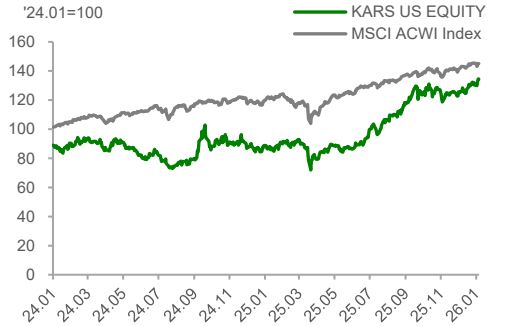
KARS는 전기 자동차 생산 또는 미래 모빌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에 관련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로 특히 현재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본토에 상장된 관련된 주식이 높은 비중(2026년 1월 21일 현재 34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 비중은 약 31%)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KARS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투자자 중 전기차 제조업체 및 미래 모빌리티 관련 첨단 기술업체 그리고 중국 내 전기차 관련 기업에 대한 노출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함.

KARS 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1.2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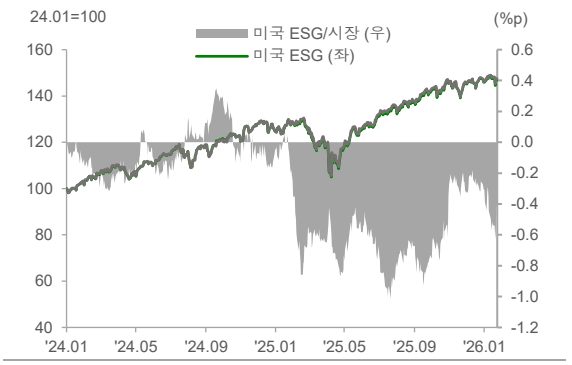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1.2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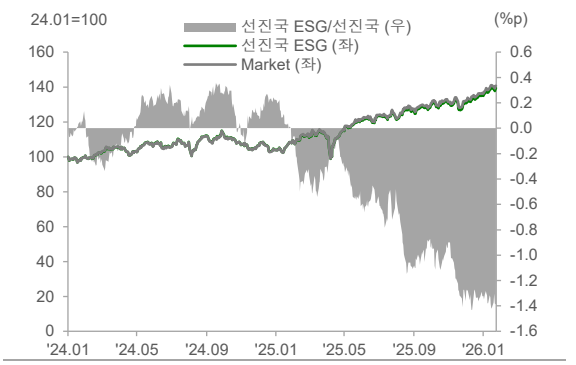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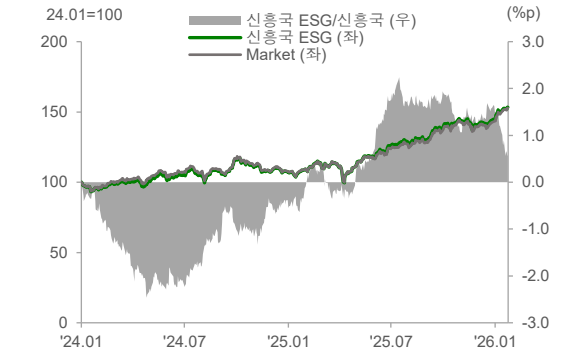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1.23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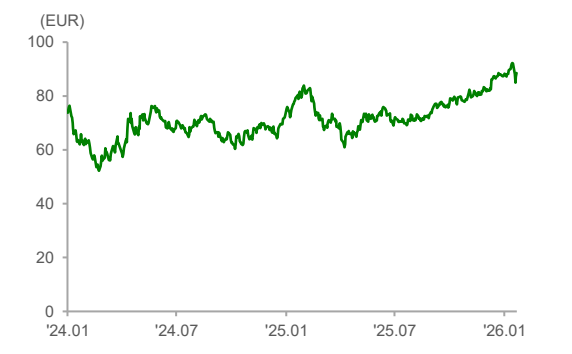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1.23 기준)

신흥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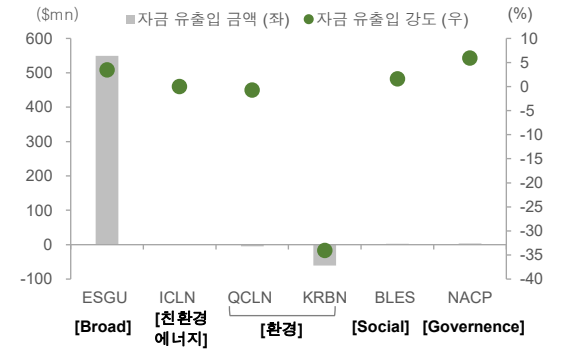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1.23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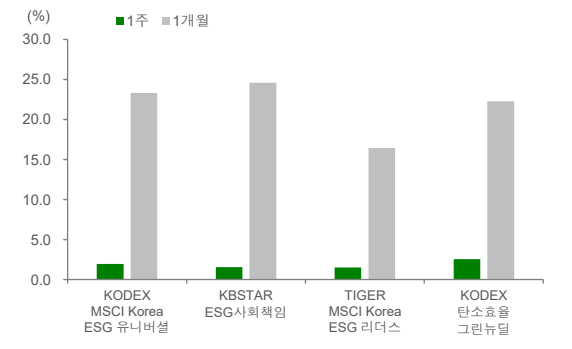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1.23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1.23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1.23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87,226	60	78.6%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1,231	13	10.1%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415	13	5.8%	13.4%
4	Social	5,696	5	5.1%	5.2%
5	Governance	422	3	0.4%	3.1%
6	기타	44	3	0.0%	3.1%
ESG 전체		**111,034**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1.23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5,776	15,771	-0.98	-0.75	1.56	7.91	550	188	3.5
	ESGV	12,010	11,939	-0.20	-0.30	2.06	8.39	24	3	0.2
	SUSL	1,057	1,042	-0.47	0.02	3.68	9.88	6	0	0.6
	NULV	1,942	1,947	-0.30	2.92	5.46	9.50	-37	-46	-1.9
	NUSC	1,303	1,233	1.03	5.37	7.03	13.27	-116	-119	-9.4
	ESGE	5,796	5,988	0.09	6.19	5.10	14.99	14	93	0.2
	ESGD	11,013	11,020	-0.65	2.55	3.87	7.44	-195	-195	-1.8
	EAGG	4,398	4,552	-0.06	0.18	-1.05	1.57	206	153	4.5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1,984	2,047	-0.04	6.95	8.49	27.26	0	0	0.0
	TAN	1,098	1,166	0.51	3.44	11.88	32.80	137	105	11.7
Environment	QCLN	573	602	1.17	7.88	11.39	35.75	-5	0	-0.8
	SPYX	2,528	2,492	-1.01	-0.69	1.78	8.05	-18	-12	-0.7
	CRBN	1,007	1,016	-0.89	0.67	1.91	7.85	12	12	1.2
	KRBN	180	177	-2.23	-1.21	4.71	17.26	-60	-4	-34.1
Social	BLES	137	140	0.67	4.47	5.47	8.29	2	2	1.6
Governance	SHE	289	290	0.33	1.95	3.90	6.97	0	0	0.0
	NACP	64	64	-0.30	1.94	5.70	14.94	4	0	5.9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1.23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105	2.81	10.68	16.06	26.07	0.0	0.0	0.0	0.0
FOCUS ESG 리더스	677	2.78	24.49	38.17	75.74	0.0	0.0	0.0	0.0
KODEX 200ESG	1,238	1.53	24.59	39.25	79.07	-23.7	-23.7	-1.9	-1.9
KBStar ESG 사회책임	140	1.94	23.24	35.37	68.41	0.0	0.0	0.0	0.0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143	1.49	16.44	26.94	62.44	0.0	0.0	0.0	0.0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413	2.54	22.27	32.57	62.34	0.0	0.0	0.0	0.0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170	2.53	22.18	32.09	61.13	0.0	0.0	0.0	0.0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152	2.53	22.24	32.41	61.66	0.0	0.0	0.0	0.0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105	2.81	10.68	16.06	26.07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1.23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 (환경)

(2026.01.10) 메타, AI 전력확보 위해 잇단 원전계약…올트먼 투자사와 맞손 - 연합뉴스

2035년까지 6.6GW 공급…"아마존·구글·MS 제치고 최대 원전 전력 구매자"

(2026.01.15) 한화 김동관 "전기선박으로 청정에너지 해양 생태계 구축해야" - ESG경제

다보스포럼 기고문…"선박 동력체계 근본적으로 전환" 역설
무탄소 해양생태계 구현…선제적 투자와 공공 민간 협력 강조
"유럽당국과 청정에너지 활용 ESS·충전설비 시범사업 논의 중"

(2026.01.19) 이베이, 배송을 '기후 조건'으로…DHL·페덱스·UPS가 핵심 파트너 된 이유 - Impact-on

2030년 27.5% 감축… "기후 목표를 사업 전략에 묶었다"
DHL·UPS·페덱스 우선 협력… "전기차·SAF가 기준"
'운송업체 참여 가이드'로 기준 명확히… 2045년까지 46% 추가 감축

(2026.01.12) 스탠다드차타드, 첫 그린본드에 4배 주문…신흥국 투자 수요 확인 - Impact-on

SC의 첫 '그린 전용' 채권은 아시아·아프리카 투자에 집중
SC의 친환경 자산 174억달러 보유…"신흥국 감축 효과 더 커"

(2026.01.13) 오스테드, 트럼프에 승리…미 법원, 해상풍력 중단 명령 무효화 - Impact-on

"긴급 상황 아냐"… 국가안보 명분에 의문 제기
확산되는 소송전… 미 풍력 정책 갈등 격화

(2026.01.13) 스웨덴 LKAB, 북극권서 '탈중국' 첫 삽…희토류 확보 위해 지하 1300m - Impact-on

지하 1300m 북극권 광산서 희토류 확보 위한 사투
광산만으로는 부족… 10년 넘는 공급망 과제

(2026.01.14) 마이크로소프트, "AI 비용 지역사회에 넘기지 않겠다"… 데이터센터 전략 제시 - Impact-on

"전기요금 전가 않겠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원인자 부담' 내걸어
"AI 인프라의 사회적 수용성 고려 필요"…회의적인 시각 여전히 존재

(2026.01.14) 엘리멘탈, 구리·배터리 도시광산에 8억달러…EU 원자재 전략의 현실 선택 - Impact-on

중국 의존 줄이려는 EU 전략, 폴란드 기업에 기회
전기차 배터리는 신중 접근… "중국과 힘겨루기 안 한다"
IPO 재도전 시사… "3년 내 암스테르담 상장도 검토"

G (지배구조)

(2026.01.14) 정의선, 새해부터 광폭 글로벌 경영 행보…中·美·印 잇달아 찾아- ESG경제

중국서 CATL, 시노펙 CEO 만나 수소·배터리 의견 교환
미국 CES서 AI·로보틱스 트랜드 파악…젠슨 황 등 면담
인도 현대차 공장 3곳 점검…"인도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야"

(2026.01.19) KT 박윤영號 조직 재정비 속도... '김영섭 라인' 물갈이 나선다 - ESG경제

이르면 이달 인사·조직개편 발표...TF 꾸려 재정비 속도
해킹사태 보안수장 교체 가능성...외부인사 고사로 난항

(2026.01.23)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잡음'...시험대 오른 조원태 리더십 - ESG경제

양사 갈등은 직급·근속·임금체계통합 문제 누적 결과
'규모의 경제' 내세웠지만...시너지 핵심축 약화 비판
조 회장 구체적 청사진 제시 부족...리더십 부재 논란

정책 ESG 뉴스

ESG

(2026.01.12) 합의금 115조원 시대'…1년 새 2배로 뛴 미국 ESG·AI 집단소송 리스크 - Impact-on

사이버 보안·AI 관련 집단소송 급증…현대차 사례도 포함
트럼프 행정부 차별금지 집행 완화 이후, 고용 차별 집단소송 확산

(2026.01.14) SEC는 멈췄지만 캘리포니아는 간다…미국 기업들, 2026년 ESG '규제의 해' - Impact-on

캘리포니아 공시 현실화…일부 규정은 불확실성 지속
규제는 분화, 비용은 현실로…CBAM·보증 부담 동시 확대
공급망 데이터 압박…요청에서 거래 조건으로 이동
AI는 문제이자 해법…비즈니스 케이스도 강화

(2026.01.15) EU, 방위산업 ESG 투자 허용 공식화… '금지 무기' 기준 전환의 의미 - Impact-on

'논란 무기'에서 '금지 무기'로…핵무기 제외
핵무기 관련 기업 110곳…투자자들 재검토 확산
저화우라늄·백린도 허용…ESG 정체성 논란 확산

E (환경)

(2026.01.13)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위헌 심판대에… 기업 대응 셈법 복잡해졌다 - Impact-on

기업 공시 의무인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SB 261은 중단, SB 253은 유지…엇갈린 법원 판단

(2026.01.13) 엑손모빌·셸이 멈췄다…베네수엘라 원유, 정치 리스크 넘어 '메탄 경고'에 막혀 - Impact-on

엑슨모빌 "베네수엘라는 투자 불가"…법·정치 리스크 넘어 '운영 리스크' 경고
위성에 잡힌 메탄 '적신호'…노후 인프라가 메이저 투자 가로막아
문제는 자원 아닌 시스템…메이저는 관망, 소형사는 한계

(2026.01.13) 포집해도 감축이 아니다? … 선박 탄소포집 LCA와 탄소회계의 불일치 - Impact-on

선박 연소 넘어 포집·활용까지…OCCS 전주기 감축 효과 확인
탄소 저장보다 활용이 더 컸다…GCMD, 해운 탈탄소 평가 기준의 맹점 지적

(2026.01.19) 중국 전기차, 관리 국면 진입…폐배터리·공급망·내수 규제 한꺼번에 바뀐다 - Impact-on

폐배터리 재활용 관리 강화…'차량-배터리 일체' 의무화
배터리 공급망, 통상 지렛대로 활용
내수 시장 왜곡 현상도 단속

(2026.01.20) EU, 배터리·전기차 공공조달 기준 바꾼다…유럽산 요건 추진 - Impact-on

배터리·전기차 조달에 단계적 유럽산 요건 적용
외국인 투자에도 현지화 조건 부과
회원국 간 이견 속 협상 본격화

(2026.01.20) 필리핀, 남중국해 EEZ서 천연가스 매장지 발견 - 연합뉴스

"기존 가스전 고갈 따른 전력 생산 차질 우려 해결 기대"

(2026.01.20) 독일 정부, EV 인센티브 2년 만에 부활…중국산도 배제 안 했다 - Impact-on

예고 없이 끊고, 다시 꺼낸 보조금…시장 신뢰의 문제
소득·가구 따라 달라지는 지원…최대 6000유로
산업 살리기 성격 뚜렷…중국차도 배제 안 해

일반 ESG 뉴스

ESG

(2026.01.13) 【2026년 ESG 트렌드 Top 10 ⑨】공급망 복합 리스크, 관리 기준이 관건 - Impact-on

기후·지정학·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흔드는 공급망
공급망 재편, 이제 리스크는 '감소'가 아닌 '이동'할 뿐
복합 리스크 시대, 비용보다 '회복력'이 새 기준 된다

(2026.01.13) 【2026년 ESG 트렌드 Top 10 ⑩】원청의 책임 한계,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 - Impact-on

"협력사 리스크는 더 이상 '외부 변수'가 아니다
책임은 커지는데 데이터는 없다…통제 불가능한 리스크가 원청으로
공시·소송으로 이어지는 책임 전환…실사 역량이 '방어 수단'이 된다"

E (환경)

(2026.01.12) 미국 첫 무선 전기차 충전 도로 가동…주행 중 충전 실증 단계 진입- Impact-on

디트로이트 1마일 구간 운영…주행 중 무선 충전 구현
기술 실증은 계속…미국 내 추가 도입은 아직 '미지수'

(2026.01.13) AI 전력 수요가 밀어 올린 친환경주 랠리…유가는 흔들려 - Impact-on

AI 전력 수요 기대에 친환경주 강세…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IEA, 재생에너지 고성장 전망…금리·전력망 투자 흐름이 관건

(2026.01.13) 내구성 탄소제거에 36억달러 유입… 자본은 더 까다로워졌다 - Impact-on

자본의 60%는 직접공기포집… 기술 쏠림 심화
초기 단계는 활발, 후기 단계는 '자금 공백'
팔린 만큼 못 지운 탄소… 실제 인도량은 판매량의 절반 미만

(2026.01.15) WEF "2026년 세계 경제, 벼랑 끝"…관세 전쟁·AI 부작용이 최대 리스크 - Impact-on

관세·공급망 무기화 시대…기업 리스크 지형 급변
AI 부작용·극한 기후까지…기업 앞에 놓인 다음 리스크

(2026.01.16) AI 데이터센터가 키운 전력 병목…사모펀드 자금, ESS로 이동 가속 - Impact-on

AI 데이터센터가 키운 '그리드 병목' 겨냥
사모펀드, 에너지 전환 인프라로 이동

(2026.01.16) Scope 2 압박에…운영 자산으로 쏠리는 재생에너지 M&A - Impact-on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및 거래 여건 개선…재생에너지 M&A 재개 조짐
데이터센터 확산이 전력 수요 견인…재생에너지 자산 선호도 상승

(2026.01.19) 탄소시장, 거래는 줄고 가격은 올랐다… '품질 프리미엄'이 판 바꿨다 - Impact-on

거래량 줄었지만 시장가치는 확대… "고품질에 돈 몰린다"
선구매·규제 수요 확대…미래 공급 경쟁 강화

(2026.01.20) 전력망 투자 슈퍼사이클, 글로벌 수요 중국으로 쏠린다…변압기 수출 사상 최고 - Impact-on

미국, 변압기 공급 30% 부족… 2030년대까지 지속 가능성
단가도 급등… "전력망 투자 슈퍼사이클 진입"

G (지배구조)

(2026.01.15) 2026 주총 시즌, 행동주의 투자자의 새 무기…빅오일에 던진 '재무 리스크' 질문 - Impact-on

배출 감축에서 재무 리스크로…행동주의 투자자 전략 선회
녹색 후퇴하는 빅오일, 주주들은 '수요 감소 이후'를 묻는다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 **중 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20251231)	매수 : 87.18%	중립 : 11.54%	매도 : 1.28%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POSCO홀딩스	-	-	-	-	-	-	-	-

2026-01-26

POSCO홀딩스 :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	최고(저) 주가
2026-01-26	매수	440000		
2025-08-04	매수	440000		